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시안외사대학교	기숙사비	4,500위안/한 학기
파견지역	중국 산시성 시안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9.09.02.~2019.12.21	기타비용	한 달 용돈 50만원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여	학 년	2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20. 01. 17 .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정규수업에 들어가기 전 모든 학생들이 반 편성 시험을 치릅니다. 반 편성 결과에 따라 각자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반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반은 1반부터 5반까지 있습니다. 수업을 한번 들어본 후 좀 더 높은 반에서 수업을 듣고 싶거나 혹은 낮은 반에서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은 반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듣기, 독해, 말하기, hsk 이렇게 중 4가지 수업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5반 학생들은 이 외에도 중국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중국문화수업이 있습니다. 1교시 수업은 중국시간 기준 8시 10분부터 시작합니다.

< 듣기수업 >

듣기 수업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간단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후 각 단원에서 주로 등장하는 단어 설명과 함께 단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듣기파일을 들으면서 문제를 풀고, 답을 함께 유추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생님의 따라 다르지만 수업하기 전에 단어시험을 봅니다.

< 독해수업 >

독해수업은 각 단원이 시작할 때마다 단어시험을 치릅니다. 우선 단어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본문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본문을 한 줄씩 읽을 때 그 속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캐치해서 또다시 알려줍니다. 본문 해석이 끝나면 본문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질문들을 조별로 토론한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독해 수업 때는 어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독해는 기본적으로 어법+본문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독해수업의 숙제는 매주 2편씩 일기를 써서 제출하는 것입니다.(반마다 다름) 숙제를 할 때는 매우 귀찮았지만 돌아보면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꼼꼼히 피드백 해 주시고, 특히 hsk작문 부분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말하기 수업 >

말하기 수업도 책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실용적인 문장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하기 수업이다 보니 수업 때도 계속 따라 읽으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생님께서 발음 교정도 해주시고, 특히 성조를 집중적으로 교정해주십니다. 가끔은 주제를 정해놓고 찬성/반대로 나누어 토론수업도 진행합니다.

< hsk수업 >

hsk수업은 기출문제집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듣기, 독해, 쓰기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주로 문제를 풀고 풀이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쓰기부분을 공부하면서 좋았던 점이 가끔 숙제로 작문해오는 숙제가 나갔는데 작문을 해오면 하나하나 꼼꼼히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시안외사대학교 모든 선생님들은 교육열이 아주 넘치십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모두 너무 친절하십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파견학교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교통편의였습니다. 우선 시안외사대학교는 교통편의가 매우 좋습니다. 근처에 유명한 중루, 대안탑, 번화가인 샤오짜이를 갈 때 지하철로 몇 정거장씩만 가면 금방 도착합니다. 특히 학교 북문 쪽으로 나가면 지하철역이 있어 이동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북문으로 나가면 바로 앞에 유명한 버블티 가게 '코코'도 있고 미니소도 있습니다. 북문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중국은행이 있고, 롯데마트나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화룬안지아'가 있습니다. 동문 쪽으로 나가면 완다광장이 있는데 이곳에는 영화관, 스타벅스, 맥도날드, 왓슨스가 있습니다. 택시비도 매우 저렴해서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좋았던 점은 택시를 타고 10분정도 이동하면 근처에 한인타운이 있어서 한국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종종 가서 사먹곤 했습니다.

서안외사대는 특히 학생식당이 잘되어 있는데 정말 다양한 각종 음식들을 판매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학교 캠퍼스도 엄청 크고 기숙사 바로 앞에는 운동장도 있어서 종종 산책을 하곤 합니다. 교통편이나 생활하기에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4500위안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시안외사대학교는 호텔식 기숙사라 통금이 없습니다.		
주위사항	방음이 잘 안 되는 편이라 늦은 시간에는 배려해서 행동해야합니다. 기숙사 키드를 잃어버리면 보증금을 지불하고 새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합니다.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호텔식 기숙사라 내부가 아주 좋습니다.

침구도 몇 주에 한 번씩 이모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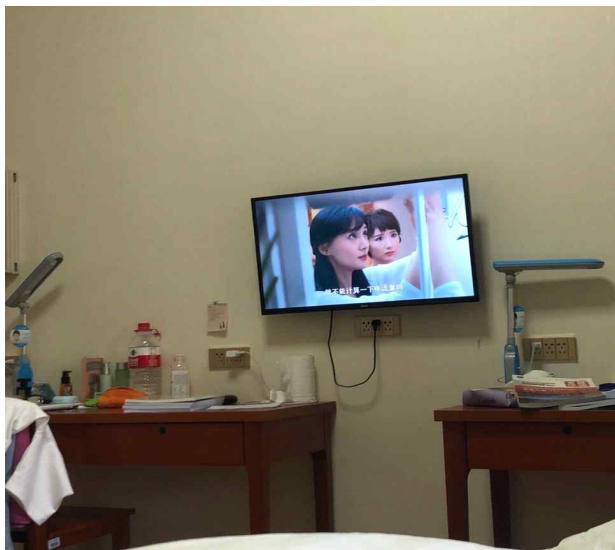
새로 세탁 한 것으로 갈아주십니다.

침대와 책상이 나란히 두 개씩 있고

커튼 뒤에는 베란다가 있는데,

빨래도 널 수 있고 음식도 조리할 수 있으며

냉장고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기숙사 내부에는 tv도 있습니다.

다만 티비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모두

중국 프로그램입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화장실도 중국의 다른 기숙사 화장실에 비하면

깨끗한 편입니다.

변기 수압이 약해 주의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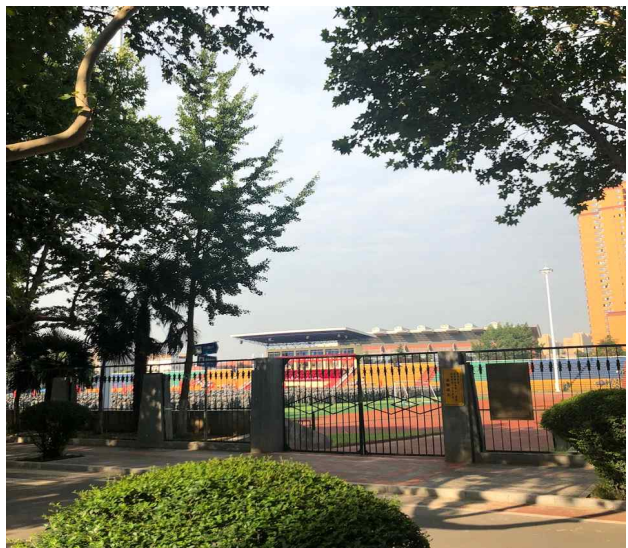
샤워필터기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필터기도 금방

더러워집니다.

왼쪽은 필터기를 새로 갈고

5일정도 사용한 후 모습입니다.



기숙사 바로 앞에 위치한

운동장입니다.

밤에는 운동하는 중국인 학생들도

불법니다.

우리학교 오월의 광장처럼

잔디밭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강의실 내부입니다.

깔끔하고 쾌적하여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학생식당 내부입니다.

학생식당은 1,2,3층탕이 있습니다.

꿔바로우, 마리상귀, 마리탕 등

다양한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외사대의 자랑 시계탑입니다.

밤에 보면 정말 이쁩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교환학생에 대한 저의 생각을 비교해보면 갔다 오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솔직히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주변사람들의 권유가 컸습니다. 준비해야하고, 취득해야할 자격증도 많았기에 한 학기 교환학생을 간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결심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생활해야한다는 부담감도 컸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반이었지만 막상 갔다와보니 정말 대학생활에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시절 타지에서인 삶을 경험해볼 수 있는 큰 기회이니 꼭 한번 갔다 오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우선 중국에서 한 학기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은 현지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배운 중국어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화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중국어를 말할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회화수업이나 회화학원이 아니면 말할 기회가 적었는데, 중국에서는 중국어가 모국어이다 보니 무엇을 하든 중국어를 사용해서 소통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물건을 살 때 등 사소한 거 하나하나 중국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회화를 할 때 중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틀리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보단 일단 말하고 보자라는 마인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선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HSK 공부를 할 때도 한 학기동안 중국에서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거름이 되어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막막했던 부분들이 점점 틀이 잡혀갔고 이제는 좀 더 중국어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몇 개월이라도 타지에서 살아본다는 것은 흔치 않은 경험이기때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도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해보면 분명 본인 자신도 성장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안은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 한 달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용돈을 조금씩 모아 한 번이라도 꼭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따로 여행오기 위해선 비자도 다시 발급받아야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중국에 있을 때 꼭 한번 국내여행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도전해보며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교환학생 생활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